

캘리그래피 서체(書體)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into the techniques of calligraphic handwriting

주저자: 이경재 (Lee, Kyong Jae)

筆하모니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II. 캘리그래피의 실제

1. 캘리그래피의 유래
2. 아날로그적 감성 자극
3. 캘리그래피의 시장성

III. 캘리그래피 제작기법 연구

1. 작업과정
2. 한글 캘리그래피서체의 특성
3. 한글 캘리그래피서체의 규칙
4. 캘리그래피 서체유형

IV. 재료의 선택

1. 붓의 선택
2. 바탕지 선택

V. 결론

참고문헌

(Keyword)

Calligraphy, handwriting

논문요약

최근 영화와 드라마의 타이틀, 책 표지, 상품 패키지 등에 캘리그래피 서체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캘리그래피 서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캘리그래피는 한마디로 손으로 표현한 손글씨 즉 프리핸드 서체이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 글에서는 캘리그래피 서체의 제작 기법을 제시한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획순과 균형을 중시하는 붓글씨와 달리 획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써야하며 오히려 인위적으로 균형을 무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일정했던 간격이 무시되고, 획수가 많은 글자는 좌우의 글자보다 크게 써야 효과적이다.

필기구나 바탕지도 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요구된다. 이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붓글씨와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의미의 전달을 위한 기호”가 아닌 글자 자체에 “표정”이 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고 먼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심미적인 측면보다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demand of calligraphic handwriting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Calligraphy means handwriting expression by hands, i.e. free handwriting style. For design majors, calligraphic handwriting is a very helpful tool. This thesis is written in order to introduce the technical skills of making calligraphic handwriting. It also included case studies to generate ways to bring some modifications. Brush writing regards strokes and balance very important. However, these two things do not give much importance to calligraphic writing. The balance has got to be artificially ruined. For example, you have got to ignore the space between two letters. A letter with more strokes must be written bigger than the one

before and the one after. In order to increase effectiveness, you are free to choose the type of pen and paper. However, one thing is the same as brush writing. We must strike a balance all the time. Most of all, calligraphic handwriting should focus on readability rather than appearance and it must be designed to recognise even from a long distance. For calligraphic handwriting, functionalism comes first than aestheticism.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한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손으로 쓴 글씨가 국내에서도 그 가치를 새로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전의 일이다. ‘한글은 영어에 비해 디자인하기가 어렵다’, ‘영어에 비해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홀대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한글의 상업적 한계는 ‘무지’와 ‘게으름’ 탓이었다는 것이 캘리그라피들의 주장이다.¹⁾

최근 영화나 드라마의 타이틀 또는 북커버, 상품 패키지의 브랜드 네임, 옥외간판, CI, POP 등에 캘리그라피 서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체를 개발하는 폰트업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캘리그라피체를 출시하고 있고 캘리그라피를 수주 받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손 글씨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렇듯 캘리그라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캘리그라피 특유의 서체가 정겹고 푸근한 인상을 주는 데다 단어의 어의를 형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터치의 질감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이 서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본점 식품매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첩판에 직접 손으로 적고 있다. 프리미엄 식품매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캘리그라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²⁾

캘리그라피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도 있다. 캘리그라피 전문회사인 ‘필묵’에서 운영하는 필묵 아트센터나 ‘술통’의 캘리그라피 일반강좌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캘리그라피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

용한 과정이다. 특히 시각디자인학과와 커리큘럼은 캘리그라피가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광고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에디토리얼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CI, BI 등의 과목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의 시각디자인 전공과목에 캘리그라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표현하는 손 글씨 즉 프리핸드 서체이다. 서체의 조형성과 붓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학생들도 주어진 과제의 컨셉트에 맞춰 스스로 캘리그라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훗날 실무를 하게 됐을 때 캘리그라피 전문가를 찾아다닌다거나 뒤늦게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연구에서는 캘리그라피 서체의 제작기법을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의 제작 방향을 시안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논문은 캘리그라피 서체의 제작에 필요한 서체의 조형성과 조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연구자는 캘리그라피의 격식과 기법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한편 필기구와 바탕지 선택에 따른 질감의 차이 등을 직접 제작한 시안을 토대로 설명해 봤다.

II. 캘리그라피의 실제

1. 캘리그라피의 유래

원광대 여태명 교수(한국 캘리그라피협회 회장)는 조선시대 서민들이 사용하던 자유로운 글씨체인 ‘민체(民體)’가 캘리그라피서체의 효시라고 보고 있다.

개화기 이전 한글소설의 유행과 더불어 필사가 들이 쓴 민체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민체는 궁체나 판본(板本)체 처럼 서체가 정해진 글자와는 다분히 대조적이다. 눈여겨볼 것은 소설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필사(筆寫)자들은 자연스럽게 글자에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 얘기를 할 땐 글자도 어딘지 모르게 부드럽고 싸움 장면을 묘사할 때 글꼴의 끝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진다. 따라서 그 당시의 ‘민체’가 한국적 캘리그라피의 원류인 셈이다.

1)한국경제 2007-6-25 붓글씨로 쓴 글씨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김지은 기자-

2)조선일보 2007-4-10 꼭꼭 눌러쓴 손글씨, 고객가슴에 꼭꼭 박혀.

-이성훈 기자-

2. 아날로그적 감성 자극

캘리그래피서체는 기계적인 인쇄체 글자인 '폰트(font)'로 규격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이를 거스르는 아날로그적 손 글씨다.

CJ는 이달 초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백설'의 활자체를 반듯반듯한 모양에서 비뚤비뚤한 손글씨로 바꿨다. '백설'이 전통과 신뢰 이미지는 강하지만 젊고 고급스런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글자체를 교체한 것이었다.



[그림 1] 개선된 '백설' CI 2007.7

'백설'처럼 손글씨로 브랜드 로고를 만들거나 제품 포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만 오늘의 차(혼합음료)·건면세대(프리미엄 라면)·국선생(천연 국물)등의 신제품은 손 글씨로 멋을 냈다.



[그림 2] 캘리그래피를 적용한 패키지

전문가들은 반듯한 글씨체는 엄격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내는 데 비해 손 글씨는 보다 친근하고 감성적인 제품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슈퍼마켓 우유코너. 파란색과 연두색 일색의 우유 판매대에 특이한 제품이 눈에 띈다. 검은색과 흰색, 푸른색이 가미된 동원테어리푸드의 '소와 나무'가 그 주인공이다. 기능성을 중시하는 종전의 우유 브랜드와 달리 개성 있는 글씨체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 각화로 유명한 고암 정병례 선생의 작품이다. 손 글씨가 일상생활을 넘어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는 "최근 들어 기업체들의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손 글씨로 만들어진 제품은 가독성이 높고 친근감이

가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³⁾

업계에서는 90년대 말부터 드라마, 영화, 책 등 문화상품에 차용되기 시작하던 캘리그래피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다고 본다. 붉은 악마 티셔츠의 'Be The Reds' 디자인이 당시 국민들의 너리에 깊이 박히게 된 것이다. 결국 손 글씨가 산업디자인의 영역으로 넘어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림 3] '2002월드컵' 응원 유니폼

월드컵 때 '비 더 레드즈'가 기폭제였다면 두산주류의 '처음처럼'은 캘리그래피의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신영복 교수의 손글씨로 더욱 유명해진 이 제품은 지난해 2월 발매한 후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단숨에 시장점유율을 높여 업계에서 주목받았다.



[그림 4] 신영복 교수 작 '처음처럼'

캘리그래피는 최근 들어 음료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다. 한국야쿠르트 광고디자인팀의 박문순 주임은 "손 글씨는 손맛을 연상시켜 결국 식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감성마케팅'의 저자인 성영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무리 서체가 다양해도 대량 생산된 글자에는 사람 냄새가 결여된 부분이 있다"며 "식음료 제품들에 캘리그래피를 쓴 것은 소비자들에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LG전자가 내놓은 '샤인 디자이너스 에디션' 휴대폰 위에 한글이 수놓아져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3)조선일보 2007-7-9 '손 글씨'엔 손맛이 있다. -호경업 기자-

기획한 것으로 가수 장사익씨의 글씨체를 가져다 썼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자신의 의상에 장사익씨 외에도 화가 임옥상씨의 손글씨를 입혀 독특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5] 캘리그라피가 적용된 LG 휴대폰

3. 캘리그라피의 시장성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이 말은 ‘아름다운(Calli)’ ‘글씨(graphy)’라는 뜻인데 ‘손멋글씨’ ‘능필’ ‘붓글씨체’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의 영향은 광고 등 인쇄 출판 디자인뿐만 아니라 트렌드의 최선두에 있는 웹과 디지털 영상매체까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시기는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편집디자인·광고카피·영화타이틀·북커버·폰트·생활제품 등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테리어·환경디자인에 이어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의 패션쇼에서 보여준 ‘장사익의 편지글씨’를 응용한 패션과의 크로스오버는 캘리그라피가 문화적 화두에 이른 결과물이다.



[그림 6] 장사익의 편지글씨를 활용한 패션

이러한 손 글씨가 근래에 와서 주목을 받게 된 바탕에는 물론 시각문화의 패러다임 변화가 디지털의 차가운 쿨미디어(cool media)에 영향을 받아, 보다 사람다운 감성을 가지고 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 근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타이틀도 손 글씨로 표현됐다. 이

글씨는 영화를 이해하며 빚어낸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현대인의 디지털문화에 대한 반감성적 저항의 메시지라 할 수 있으며, 디지털홍수의 시대에 아날로그의 감성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 느낌의 철학, 슬로푸드, 추억 비즈니스 등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림 7] 캘리그라피가 적용된 영화타이틀

이러한 트렌드는 출판업계에서도 그 영향이 적지 않으며 책제목과 디자인이 성공의 80%라는 말이 있듯이 친화적인 손 글씨 제목은 디지털 사용자들에게 한 번 더 존재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림 8] 캘리그라피가 적용된 책표지 타이틀

“일하겠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이 공개한 캠프의 슬로건이다. 캘리그라퍼 강병인씨의 작품이다. 후보자의 “역동적인 이 전 시장의 이미지를 CI에 녹이려 애썼다”고 캠프는 말했다.



[그림 9] 캘리그라피가 적용된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슬로건

인간의 감성이 느껴지고 쓰는 사람의 숨결이 담긴 손글씨는 디자이너에 의해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문화 폐부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시각문화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4)

디지털의 패스트푸드에서 유일하게 디자인의 감성과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대안이 캘리그래피이다.

III. 캘리그래피 제작기법 연구

1. 작업과정

캘리그래피 제작회사 ‘술통’의 대표인 캘리그래피 강병인 씨가 말하는 캘리그래피의 작업과정을 소개하면 캘리그래피는 글자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보통의 디자인 작업과는 과정이 많이 다르다.

어떤 작품이든 제작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는 그 제품의 컨셉트를 파악하는 일이다. 제품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이미지를 글자에 담길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글씨체가 나온다고 한다.

먼저 붓으로 종이에 글자를 직접 써보면서 느낌을 잡아 나간다. 물론 붓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도 많다.

그렇게 글꼴이 나오면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통해 디자인의 세세한 부분을 완성한다.

하지만 글자의 예술성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작품의 분위기나 컨셉트가 묻힐 수 있다.

2. 한글 캘리그래피의 특성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학적이면서도 편리한 글자로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세계의 언어학자가 격찬을 아끼지 않은 한글에도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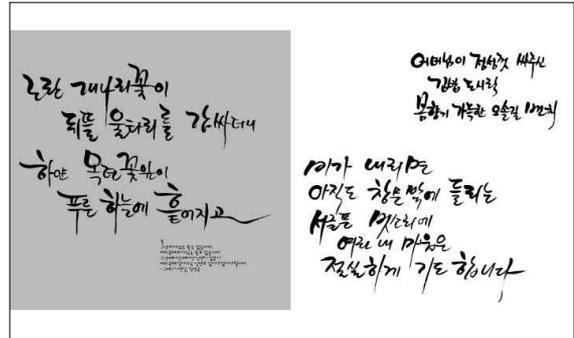
한글은 알파벳이나 가나와 달리 복잡 미묘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음(초성)과 모음(중성), 받침(종성)의 세 가지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한글은 세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크기 또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으면 거부감이나 어색함이 느껴진다.

전통서체인 붓글씨체 역시 문자의 균형감 즉 자,모음의 위치와 크기의 조합에 따라 명필 여부를 평가한다.

한글 캘리그래피 서체는 전통적인 서예와 다르다. 형식

에 엄매이는 서예에서 벗어나,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캘리그래피다. 붓글씨가 주는 진부한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법을 접목한 것이 캘리그래피이다. 시각적으로 균형감이 있고 우아하면서도 강렬하고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제작해야 한다.



[그림 10]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된 캘리그래피

3. 한글 캘리그래피서체의 규칙

캘리그래피는 전통서예를 바탕으로 하지만 서예보다 감성적이고 인간미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작가의 마음을 직설적,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대적 디자인 글꼴이다.

따라서 캘리그래피서체는 서예가 요구하는 붓글씨체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아름다운 글씨를 연출하려면 단어의 초성(첫 번째 자음)은 굵고 크게 강조해야 하며, 문장 중에 한 글자가 복잡하고 획수가 많을 때는 그 글자만 좌우의 글자보다 크게 써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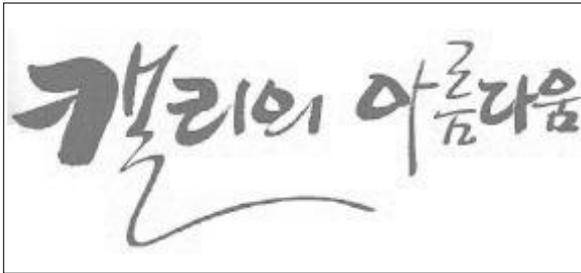


[그림 11] 초성(첫번째 자음)을 강조한 캘리그래피

이는 캘리그래피서체의 근본 취지인 가독성과 원거리 식별을 위해서다.

4)중앙일보 2007-6-5 이명박캠프 경선 슬로건 디자인들여. -강정현 기자-

그리고 한글 캘리그래피서체는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무시해야 한다. 앞서 말한 복잡하고 획수가 많은 글자는 좌우에 비해 글씨가 크다.



[그림 12] 획수가 많은 글자는 좌우에 비해 크게 쓴다.

이러한 변수로 인해 활자체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경우 문장이나 단어의 끊김 현상을 주어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전에 ‘문근영 글씨체’, ‘동방신기 글씨체’ 등 사람이 직접 쓴 글씨가 폰트로 개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는 엄격히 말해 캘리그래피와는 다른 개념이다. 각각의 폰트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담을 순 있겠지만, 이미 규격화된 글꼴에 각각의 상황에 따른 감정을 불어넣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3] 캘리그래피서체와 폰트의 비교

4. 캘리그래피 서체유형

캘리그래피서체는 개인의 필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정체와 이태릭체 그리고 장체와 평체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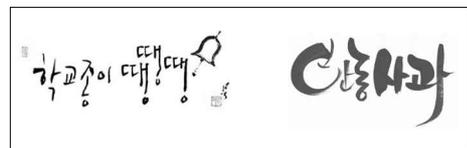
[그림 14] 장체와 평체

이태릭체는 정체에 비해 운동감을 줄 수 있으며 장체는 날카로움, 평체는 둔탁한 무게감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가로획과 세로획을 차별화시켜서 글자에 세련미를 준 서체, 또는 캘리그래피체를 인위적으로 글자의 모서리에 각을 주어,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주로 패키지 브랜드 네임에 활용하는 브랜드로고체 등 다양한 서체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5] 운동감이 느껴지는 캘리그래피 이태릭체

또한 단어의 이미지를 글씨에서 풍겨 나올 수 있게 디자인한 캘리그래피 서체가 있다.



[그림 16] 단어의 이미지를 글씨에서 표현한 캘리그래피

IV. 재료의 선택

1. 붓의 선택

캘리그래피를 할 때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붓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재질의 붓일지라도 길이와 굵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붓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작품의 컨셉트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붓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때로는 나무젓가락에 잉크를 묻혀서 써본다거나, 비닐을 뭉쳐서 써 보거나, 붓을 여러 방법으로 털을 절단해 써 보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질감을 느껴 볼 수 있다.



[그림 17] 붓의 종류 (붓글씨용 붓, 디자인용 둥근붓, 평붓)

붓은 너무 크지 않고 탄력이 있는 황모(죽제비털)붓이 적절하다. 그러나 황모는 탄력이 좋은 반면 먹물의 함량이 적어서 자주 찍어서 써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초보자는 순수 황모붓 보다는 흰색 털이 적당히 섞인 검모 붓을 선호한다. 붓이 탄력이 적으면 글씨를 쓸 때 누운 털이 일어나지 않아서 쓰기가 불편하고 글씨의 생동감이 없어진다.

붓글씨용 붓과 더불어 디자인용 납작 붓(평 붓), 둥근 붓, 바탕칠용 뾰족 붓, 뾰족한 유화 붓 등 용도에 따라 골라 사용해야 한다.



[그림 18] 디자인용 납작 붓에 의한 캘리그래피

이밖에도 붓 펜, 매직 펜, 드라이마커, 색연필, 크레파스 등 도 질감을 표현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2. 바탕지 선택

컨셉을 표현 할 때는 필기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바탕지의 간지효과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설책의 제목이나 고전영화의 타이틀을 표현 할 경우엔 표면이 거친 왓트만지나 엠보싱이 심한 용지를 사용하면 붓 터치가 자연스럽게 살아나 사색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림 19] 왓트만지에 디자인한 캘리그래피

다만 이러한 효과를 보려면 먹물의 농도가 진하게 하고, 붓에 습기가 없어야 자연스러운 터치 결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유아적인 서체를 연출하고자 할 때엔 흰색의 샌드페이퍼에 크레파스로 쓰면 효과적이다.



[그림 20] 샌드페이퍼에 디자인한 캘리그래피

이렇듯 캘리그래피 서체를 디자인 할 때엔 일정한 재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단어나 문장의 의미 또는 형상, 느낌에 따라 그때그때 자유롭게 재료를 취사선택 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진정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V. 결론

캘리그래피 서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표현한 손글씨 즉 프리핸드 서체이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 글에서는 캘리그래피 서체의 제작

기법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획순과 균형을 중시하는 붓글씨와 달리 획순에 구애받지 않을뿐더러 인위적으로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단적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무시하고 획수가 많은 글자는 앞뒤의 글자보다 크게 써야 한다. 필기구나 바탕지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붓글씨와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서체 자체의 아름다움에 천착하기보다 가독성을 높이고 먼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심미적인 측면보다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김홍근, 명품을 만드는 캘리그래피, 성안당, 2005
- 2) 이경재, 제품 包裝에 表現된 브랜드네임 書體의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한양대 산업경영 대학원 패키지 디자인 학과 석사논문, 1998
- 3) 정원일, 現代 그래픽디자인에서의 캘리그래피적 表現과 造形的 特徵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93
- 4) 김일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브랜드로고타입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5
- 5) <http://www.philmuk.co.kr/>
- 6) <http://www.sooltong.co.kr/>
- 7) <http://www.callidesign.co.kr/>
- 8) <http://www.brushdesign.co.kr/>
- 9) <http://www.ytmart.net/>
- 10) 한국경제, 2007.6.25, 붓글씨로 쓴 글씨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김지은 기자
- 11) 조선일보, 2007.4.10, 똑똑 눌러쓴 손글씨, 고객가슴에 똑똑 박혀. 이성훈 기자
- 12) 조선일보, 2007.7.9, '손 글씨'엔 손맛이 있다. 호경업 기자
- 13) 중앙일보, 2007.6.5, 이명박캠프 경선 슬로건 CI만 들어. 강정현 기자

